



77억 상당 면세 양주·담배 밀수입 일당 검거해 구속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과 인천지검 공조수사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염승열)과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면세 담배 70만 갑(37억 6000만 원 상당)과 면세 양주 1110병(3억 60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해 4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했다.

세관 조사국에 따르면 "면세 담배 40만 갑(35억 8000만 원 상당) '밀수입을 예비한 총 77억 원 상당 면세품 밀수입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공모한 이들은 지난 2월 23일 3명 구속 기소 후 3월 29일 1명도 구속했다.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예정이다.

범인들은 관세 없이 밀수입한 면세품을 높은 마진에 되팔아 수익을 얻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해 반송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 지역 내 창고에 반입했다.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범죄 개요도 그림 [사진 제공=세관]

이와 관련,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한 다음에 가짜 박스를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했다는 것이다.

반송수출은 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면세품을 외국으로 판매할 경우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을 노린

치밀함을 보여준 수법으로 확인됐다.

가짜 수출용 박스에는 생수나 가짜 담배 상자(담배를 대신 골판지로 채움)를 집어넣어 면세품 수출용 박스와 비슷하게 모양 및 무

게를 맞추었다는 점은 범행이 주도면밀한 기획범죄로서 세관과 검찰이 공동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인천지검은 인천공항세관이 확보한 창고 CCTV 영상을 화질 개선하여 '바꿔치기' 장면을 명확히 확인하고 3명을 직접 구속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지검과 공조하여 주범 1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체계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또한,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다.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하여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검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범죄 엄단은 물론 예방함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미순 기자

데스크칼럼



김양훈
위원

청백리 지도자 없어 국민이 운다!

여의도 범죄경력자 수두룩...노조 집합소 공천만 주면 전과자도 정당 지지도 상승

뜻이다.

한동훈의 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 국민의 선택권은 선거판의 표를 찍는 기계가 됐다는 사실로서 서글프다.

이제 정치판도 "범죄와 전쟁" 이야기로 정당의 수장 입에서 강패란 단어가 스스로없이 나온다. 80년도 강패들이 회갈을 들고 전쟁하는 모습을 다시 기억하도록 만든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회갈을 연상시킨 패러디로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판 스스로가 강패의 세계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 국민은 강패를 악의 뿌리로 인정하고 있다. 정치가 이 나라에서 악의 뿌리가 됐다는 것이다. 이런 생태계가 조성됐다는 사실이다. 뒷골목보다 못한 명분도 없는 정치가 됐다.

한 위원장의 '강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범죄 온상은 뒷골목 세력 다툼에서 나라를 두고 전선이 옮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1호 VIP다. 평생 검찰에서 살아온 인물이다. 법을 다룬 인생이다. 군림이란 의식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민은 합리적인 정치를 주문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뒷북 정국에 국내 의료계 문제 등 현안으로 보수가 죽는다고 아우성이다. 대통령 독심은 타협 정치와 달라 국민 정서는 물줄기를 바꾸는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인 범죄 척결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밀어붙이면 검찰의 칼은 무소불위라고 역공이 나온다. 검찰의 칼은 오해가 없어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과 다르지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뒷골목보다 더 지저분한 범죄로 얼룩진 여의도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노조 활동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극단주의 성향의 인물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총체적 이런 인물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추후 국회가 어떻게 될 보듯 뻔하다.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진영에 논리로 가버리면 국민만 더 고생길이다.

1명을 죽이면 살인자다. 100만 명을 죽이면 전쟁의 영웅이란다. 이런 되먹지 않은 주장은 정치가 민중을 속였다. 국민은 절규하면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죽이는 정치가 판을 치며 살인자로 부상했다. 지금 정치인들은 5000만 명의 국민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영웅이 되려고 한다. 국민의 피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심만 요구한다.

부산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은 '범죄와의 전쟁'으로 이재명과 조국을 되출시킬 것"이라고 지난 1일 해운대 지원 유세에서 나온 말이다.

한동훈 독설은 "강패 싸움도 명분 필요하다. 이·조 명분은 '감옥 안가'", 여당의 명분은 정치개혁이다. 이런 발언의 일침은 굉장히 센 것은 틀림없다.

한동훈 국회의총괄선대위원장의 부산발 주장에서 강패란 단어는 여의도 국회가 영화 '아수라'와 '범죄의 도시'로 연상시키는 대목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에서 "아수라, 범죄의 도시"의 인물 캐릭터가 세간에는 22대 총선과 맞물려 다시 비교되고 있다. 설정 인물들을 정치인들과 비교하며 풍자로 분석하는 방송도 있었다.

한 위원장은 더 나간 일침은 "영화 명대사 중 강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필요한 데 이·조가 표 달라는 명분은 무엇인가"라고 "이재명과 조국"을 두고 이들은 감옥에 못 간다는

인천관광공사 정규직 21명 채용

인천관광공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총원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분야별 전문 인재를 4월 18일까지 공개채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규모는 21명이며, 세부 채용분야와 인원은 △3급 일반행정 1명 △6급 관광·마이스 7명 △6급 건축 2명 △7급 일반행정 5명 △7급 일반행정(장애인) 1명 △7급 일반행정(보훈) 1명 △7급 회계 1명 △7급 전기 1명 △7급 기계 1명 △7급 정보통신 1명이다.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해온 공사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한 바 있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통해 연령·학력·전공에 제한 없이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8일 오후 6시까지 공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 필기전형(경력직 제외), 인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6월 28일 최종 임용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미순 기자